

# 기공 5년 나주혁신도시 외형 갖춰간다

기반 공정률 92%... 연내 기본공사 마무리  
시, 교육·주택·문화 등 정주여건 조성 총력

지난 2007년 11월 첫 삽을 뜬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나주시는 “오는 8일로 기공 5주년을 맞은 혁신도시 기반공사 공정률은 92%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5개 공공기관 중 10곳이 청사를 신축중에 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관계자는 “5년전 허허벌판이던 733만㎡의 광활한 부지에 밤낮으로 공사차량이 오가면서 외형을 갖춰가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대부분의 기반공사가 끝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하는 10개 기관중 우정사업정보센터가 가장 먼저 내년 3월에 입주하며, 한전이 2014년 말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한전KPS 연구복합시설(연수원)은 8개월여 동안의 협상 끝에 최

근 건립계획을 최종 확정지었으며, 미착공 5개 공공기관 중 3개 기관이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촌경제연구원도 서울의 부동산 매각이 안료됨에 따라 이달 중 혁신도시에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고,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부지면적 축소변경안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대로 12월중에 부지매입 및 설계를 발주할 예정이어서 올 연말까지는 15개 기관 모두 혁신도시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나주시는 현 정부 초기에 혁신도시정책이 표류하면서 당초 2012년에서 2014년까지로 지연된 인구 5만명의 목표연도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교육·주택·문화 등 정주여건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관내 주택 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현장.

입이나 임대시 주택용자금의 이자 및 부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공립 국제고 설립과 유치원 등 강남권에 버금가는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 미래형 특화병원 및 명품 프리미엄 쇼핑센터 유치 등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9월 LH의 이전기관 임직원 특별 분양 1226세대 가운데 24.6%만이 분양된 것은 이전기관별로

사태를 일정부분 확보한 주거대책과 가족이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임성훈 시장은 “나주는 전남 서남부의 8개 시·군 관문으로서, 향후 도시 발전축이 나주로 이동할 것이어서 부동산 등 미래가치가 월등하다”며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주변의 문화관광유적지와 연계하면 혁신도시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 전남 잇단 취업·창업박람회 ‘호기’

오늘 장성 홍길동체육관, 15일 나주 실내체육관

나주와 장성 등 전남 중부권에 취업박람회가 잇따라 열린다.  
전남도에 따르면 7일에는 장성에서 여성 취업·창업박람회가, 15일에는 나주에서 취업박람회가 개최된다.  
◇7일 여성 취업·창업박람회=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자아발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남 여성 취업·창업박람회가 장성군에서 군 단위 최초로 열린다.  
전남도와 장성군이 주최하고, (재)전남 여성플라자와 장성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새일로 시작하는 비상-여성들이여, 새로 일하고 다시 날자!’라는 슬로건으로 7일 홍길동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장성군을 비롯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6개 시·군과 120개 업체가 참여, 취업·창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여성 구인·구직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람회장 부스는 주제별로 ▲채용관 ▲창업관 ▲취업상담관 ▲진로 탐색관 ▲여성 친화관 ▲부대행사 등으로 나뉘어 마련된다.  
‘채용관’은 사전접수를 마친 구직여성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해 현장 당일 채용이 가능토록 운영하며, ‘창업관’은 상권분석을 비롯한 창업상담과 자금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취업 상담관’에서는 교육복지사·교무행정사·그림책 지도사·

전래놀이 지도사 등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보다 생생하고 실질적인 직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15일 나주 취업박람회=구직자에게 취업선택의 기회와 기업들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2012 희망나주 취업박람회’가 오는 15일 나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나주시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향후 입주할 기업체 70여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채용인원은 400여 명에 이른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주)팔도와 (주)남양유업 등이 참가해 지역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 희망자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김홍희기자 yongho@  
/나주=손영철기자 ycsn@



“특등급 줘서 감사하요”

담양군 대전면 농민들이 6일 2012년산 공공 비축용 건조버 매입장에서 특등급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담양군은 다음달 5일까지 읍·면별로 2012년산 공공 비축용 건조버 12만4321가마(가마당 40kg)를 매입할 계획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화순군, 을지연습 평가 국무총리 기관표창

화순군(군수 홍이식·사진)이 2012년 을지연습(8월 20~23일) 중양평가 결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군은 올해 을지연습 기간 동안 지역주민 및 학생들로 구성된 참관단을 운영하고, 지역 군부대와 합동으로 민방위 장비와 군사장비 합동전시회를 개최, 중앙 평가단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비상대비 주관부서의 세밀한 사전연습계획 및 준비, 시행과정에서의 다양



한 시책 추진 등에 호평을 받았다.  
홍이식 군수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확립해 전시 비상대비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즉각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담양군-전남교육연수원 사업 활성화 업무 협약

담양군과 전남도 교육연수원(원장 송병천)은 6일 영성회의실에서 교육사업 활성화와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은 전남도 교육연수원의 우수강사 인력을 공유하고,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에 대비해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외국어 연수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기관과 연계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는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연수원 측은 연수원에서 이뤄지는 각종 연수과정에 지역의 유적지와 문화관광지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넣어 담양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등 전남교육의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해 나아갈 계획이다.  
최형식 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 교육사업과 세계 대나무박람회 개최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훌륭한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 전 북

## 전북 동부권, 농식품·관광 허브로

남원·순창·진안·임실·장수·무주 등 6곳  
道, 시·군당 30억씩 지원...균형발전 기대

남원시를 비롯해 순창·진안·임실·장수·무주 등 전북 동부권이 농식품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삼아 개발될 전망이다.  
전북도, 도의회, 동부권 6개 지역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부권 발전위원회’는 6일 도청에서 위원회를 열고, 서부권보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이들 지역을 각각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에 맞는 식품과 관광산업 중심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식품산업은 각 시·군의 여건에 맞

고 전국적인 인지도와 명성을 확보한 핵심전략 품목을 선정해 생산·과거·유통·체용으로 연계해 전국 최고의 명품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원 허브 ▲진안 홍삼 ▲무주 천마 ▲장수 오미자 ▲임실 치즈 ▲순창 장류()가 중심이 된다.  
또 휴양·치유를 선호하는 관광산업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숙박시설과 특산물 판매장, 향토음식점 등 주민 소득 창출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사업에

발굴한다.  
남원은 광한루 관광타운, 진안 마이산주변 레저 타운, 무주 반딧굴 체험숙박 관광단지, 장수 말(馬)산업 클러스터, 임실 치즈 투어벨트, 순창 강천산 관광벨리 등이 추진된다.  
‘전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한 도는 이들 지역에 시·군당 30억원 가량을 지원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동부권에 집중된 관광과 식품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녹색산업을 활성화하면 지역간 격차가 다소 줄어들고 국토 균형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고창·부안=강철수기자 knews@

## “수십만 가창오리 군무 만나보세요”

‘군산 세계 철새축제’ 21~25일 금강 철새조망대

국내 대표적인 자연생태 축제로 자리매김한 ‘군산 세계 철새축제’가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군산시 성산면 금강 철새조망대와 생태습지 공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9번째인 축제는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동행’이란 주제로 철새탐조와 생태관찰 중심으로 치러진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흥미 위주의 공연과 웃고 떠드는 이벤트성 축제에서 벗어나 수십만 마리 가창오리의 화려한 군무와 함께 철새축제 의도에 맞게 철새탐조와 생태관찰 및 친환경 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의 주요 컨셉트는 ‘생태체계를 통한 힐링(치유=healing) 축제’로, 도시인들이 잠시 쉼을 내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마련될 계획이다.  
소음이 큰 무대공연이나 주민 동행 행사를 배제하는 대신 60여개의 생태체험과 참여행사로 구성했다.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은 탐조투어 행사이다. 탐조투어는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가창오리 등 철새들을 직접 눈앞에서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주말 탐조투어는 축제가 종료된 후에도 다음해 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가창오리는 국

제적 보호종으로, 시베리아 바이칼호 일원에서 서식하며 겨울을 나기 위해 11월 초부터 이듬해 3월 까지 금강유역에서 머문다.  
특히 전국 도보여행 동호인 1000명이 참여하는 ‘철새와 함께 하는 구불길 체험’ 활동과 전국 자전거 동호인과 군산시민이 참여하는 ‘두 바퀴로 즐기는 철새체험 여행’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도보여행과 자전거타기 행사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국립 중앙과학관 과학체험을 비롯해 국립 생물자원관 특별전, 군산기상대 기상프로그램 체험전, 국립 농업과학원과 연계한 곤충전시 등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단 신

전북 독립영화제 대상에 이수유 감독 ‘선화사’

지난 6일 막을 내린 ‘제12회 전북 독립영화제’ 대상에 이수유 감독의 영화 ‘선화사’가 선정됐다.  
‘선화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버텨내는 노부부의 일상을 담담한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우수상은 이진우 감독의 ‘겨울잠’과 조승연 감독의 ‘33리’에게 각각 돌아갔다.  
전북 독립영화제는 지역의 저예산 독립영화와 영화인을 발굴하고자 마련된 영화제로, 올해 40여편의 영화가 출품됐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정읍 목조문화재·전통사찰 화재예방 점검

정읍시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7일까지 지역 내 목조문화재 23곳, 전통사찰 10곳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피향정(보물 289호) ▲무성서원(사적 166호) ▲김동수 전통가옥 ▲태인동헌

등 국가나 도 지정 문화재 23곳이다. 대장사, 정토사, 보림사 등 전통사찰 10곳도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소화기를 비롯한 소방시설 확보와 관리 여부, 화기·전기시설의 안전관리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정읍시·LH전북본부 과학산단 투자설명회

정읍시와 LH 전북지역본부는 최근 경기도 일산KINTEX에서 분양을 앞둔 ‘정읍 첨단 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한국방사선 동위원소 협회 회원과 원전 건설 국내대표 기업, 방사선 기기

분야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석해 방사선 특화 산업단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읍시 관계자는 “첨단 과학산업단지 투자유치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만큼 조기 분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고창군·새일지원본부 여성일자리 사업 추진

고창군과 전북 새일지원본부는 최근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 20명과 함께 참바다 영어조합법인·㈜케이엔비푸드시스템·㈜청택 등 구인 기업을 방문, 찾아가는 여성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구직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이어 2번째로 실시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문의(063-560-8083).  
/전주·고창·부안=강철수기자 knews@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서울·광주 등지에서 온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최근 남원시 지리산 자락 고령지 사과밭에서 사과따기 체험을 하고 있다. /남원=백선지기자 bs8787@

김제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호응

김제 시립도서관(관장 김복두)이 개관시간 연장과 야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 시립도서관은 지난 2007년부터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개관시간을 연장, 밤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신 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개관시간의 경우 자료실은 오전 9

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람실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장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김제 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평생학습지원과 지적·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주 수·목요일에 부동산학 개론과 민방, 매주 목요일에 ‘나도 시인이다’ 등 야간 문

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제=강철수기자 knews@